

Benzene, 트러블로 35달러 급등!

FOB Korea 455-460달러 형성 ... 타이완에 강세에 동아시아 고장

Benzene 가격은 8월1일 FOB Korea 톤당 455-460달러로 톤당 평균 35달러 급등했다.

특히, 7월말 들어 타이완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벤젠 수요가 강세로 돌아선 가운데 일본, 한국, 중국의 벤젠 플랜트 트러블이 겹쳐 CFR Taiwan은 톤당 470달러를 기록해 45달러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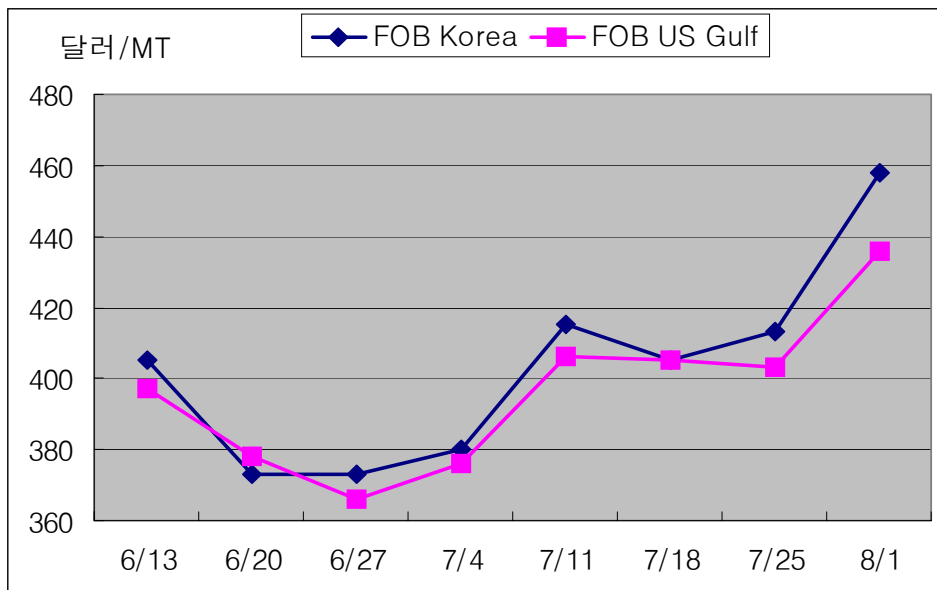
이에 벤젠 무역상들은 장기 공급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동아시아 플랜트들의 트러블이 다발로 발생해 수급타이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타이완과 일본은 벤젠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8월 수요물량을 9월로 이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강세를 비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월 상순 거래물량 3000톤이 FOB Korea 450달러에 거래됐고, 일부는 455달러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9월 하순 가격도 FOB Korea 450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9월 상순 거래가격으로 FOB Korea 톤당 460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벤젠 공급부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Benzene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벤젠 가격은 8월1일 8월 거래가격이 FOB US Gulf 갤런당 145.00-146.00센트로 톤당 평균 436달러를 형성하면서 33달러 급등했다.

미국의 벤젠 가격은 9월 거래물량도 갤런당 145.00-147.00센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8월 계약가격은 140.00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04>